

人文論叢

80권 4호

2023년 11월

서평



# 문화 연구로서의 장애사와 전통시대에 대한 환상

이경하\*

[서평] 정창권(2005), 『세상에 버릴 사람은 아무도 없다』, 문학동네, 215쪽 등 ‘장애인 5부작’

## 1. 전통시대 장애인 통념에 대한 반기

‘기억하는 남성, 기억되는 여성’의 구도처럼, 통념 상 전통시대 장애인 역시 드물게 기억되고 종종 왜곡되는 존재였다. 장애 정도가 심하거나 남 보기에 흉하면, 가족도 의도치 않게 장애인을 집 안에 방치했을 것이라 생각된다. 그것이 최선의 보호라 여기면서, 장애인은 변변한 직업을 갖지도 못했을 것이다. 이것이 전통시대 장애인에 대한 일반적인 생각이다. 여기에 반기를 든 것이 정창권 교수의 『세상에 버릴 사람은 아무도 없다: 역사 속 장애인 이야기』(2005, 이하 『세상에』로 칭함)로 시작된 ‘장애인 5부작’이다.

이 서평에서 말하는 ‘장애인 5부작’이란, 『세상에』를 비롯하여 『역사 속 장애인은 어떻게 살았을까: 사료와 함께 읽는 장애인사』(2011, 이하 『역사 속』으로 칭함), 『근대 장애인사: 장애인 소외와 배제의 기원을 찾아서』(2019)와, 정창권 외 공저인 『한국장애인사: 역사 속의 장애 인물』(2014), 『소설로 장애 읽기: 근대 장애인의 문학적 초상』 1·2(2018)를 가리킨다. 이른바 ‘전통시대’의 장애인에 대한 관점이 이 ‘장애인 5부작’에서 일관되고 있다.

서평 대상 책의 제목이기도 한 말, ‘세상에 버릴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 서울대학교 인문학연구원 HK조교수

1 ‘전통시대’는 정창권 교수가 ‘장애인 5부작’에서 줄곧 쓰는 표현으로, 대략 20세기 이전을 뜻한다.

세종 때 박연이 관현맹인의 처우를 개선하라고 요구하면서 했던 말이다(p. 59, 이후 페이지수만 명기). 이 말은 정창권 교수의 생각을 대변한다. 『세상에』의 의도는 아래와 같이 분명하다. 이것은 ‘장애인 5부작’을 관통한다. 『세상에』 마지막에서 그는 이렇게 적었다.

“전통시대 장애인은 결코 천시되지 않았고, 자기 나름의 직업을 갖고 살았다. 그렇지 않으면 최소한 심부름이나 불 때기, 청소 같은 집안일을 해주며 살아갔다. 하지만 20세기 이후 산업화가 촉진되고 각종 자본주의 병폐가 심화되면서, 장애인은 거리로 내몰려 걸인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하여 정부는 서구의 복지정책을 본받아 집단 수용시설을 만들어 결과적으로 그들을 사회로부터 격리시켰고, 그에 따라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장애인을 이방인으로 취급하거나 그들의 신체에 대해 혐오감까지 갖게 되었다. 현재 우리 주변에는 장애인을 좀처럼 찾아볼 수 없는데, 그것은 정부가 이렇게 장애인을 정책적으로 일반사람들과 분리했기 때문이다.”(197-198)

정창권 교수는 『세상에』 이후 장애인 관련 책을 꾸준히 냈고, 고전을 전공한 이력을 살려 전통시대의 장애인 관련 기록들을 섭렵해 그 공이 작지 않다. 그런데 ‘전통시대’란 용어의 부적절함은 차치하고, 같은 고전 전공자의 시각에서 보았을 때, ‘장애인 5부작’의 일관된 관점과 사료를 다루는 방식이 우려된다. 대중적 영향력도 우려스러운데, 예컨대 2013년 문화재청 홈페이지에 정창권 교수의 책을 인용한 전통시대 장애인에 대한 기사가 올라와 있다. 요지는 한 마디로 전통시대의 장애인 복지정책과 관념이 선진적이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논평자는 전통시대 장애인에 대한 관점과 자료를 다루는 방식 등은 몇 가지 점에서 재고될 여지가 있다고 생각한다. 여기서는 다른 ‘장애인 5부작’도 언급하겠지만, 그 근간이 되는 『세상에』를 집중적으로 본다. 『역사 속』과 『한국장애인사』가 20세기 이전을 주로 다루어 『세

상에』와 같이 언급할 때가 많다.

## 2. 서술방식의 문제점

『세상에』를 ‘장애인 5부작’의 근간이라 함은 단지 첫 출판이어서만은 아니다. 『세상에』가 근간이라 한 것은 이후 저작에서 전통시대에 대한 일관된 관점의 출발점이라는 점에서, 또한 이후 책의 자료 확대의 근거지라는 점에서 그렇다. 연구에서 인용 자료를 늘이는 일은 자연스런 현상이지만, ‘장애인 5부작’에서 그것은 좀 심하다. 『세상에』의 후속작인 『역사 속』과 『한국장애인사』가 주로 과거 자료의 인용으로 채워졌다는 점에서 더 그렇다.

『세상에』의 목차를 보면, 세 부분으로 나뉜다. 첫째 장, “전통시대 우리의 장애인사”, 둘째 장, “역사 속 장애인 이야기”, 셋째 장, “장애문제, 우리 역사 속에 해법이 있다”가 그것이다. 첫째 장에서는 장애인 명칭과 종류, 국가의 복지정책을 다루고 있다. 둘째 장에서는 신체장애인과 정신장애인, 중복장애인을 주로 인물별로 차례로 소개하고, “질병과 장애인”을 별도로 기술하여 나병, 두창, 중풍 등을 다루었으며, “기타 장애인”에서는 “생식기가 불완전한 사람” 등을 다루었다. “여성과 장애”는 관련 연구가 많은데, 다만 〈노처녀가〉를 소개했다. 이어서 “장애 가족 및 보장구들”과 “장애인 예술가”를 소개하고, 셋째 장에서는 이른바 전통시대, 근대, 현대, 미래의 장애문제 방향을 개략적으로 서술했다.

장애인 명칭과 유형이나 복지정책이 이후 저작에서 반복되는 것은 이해할 수 있고 당연하다 싶다.<sup>2</sup> 그러나 자료의 인용과 나열이 주를 이루는

2 장애의 종류도 최근 점점 늘어가는 추세지만, 전근대 장애에 대한 관점은 고정될 수도 있다.

‘장애인 5부작’에서, 특히 『역사 속』과 『한국장애인사』에서 자료의 확대는 주제의 확대라기보다 인용이 더 길어졌을 뿐이어서 우려된다.

예를 들어, 강취주에 대해, 『세상에』에서는 “역사 속 장애인 이야기”에서 “지체장애인”의 예로 들었는데(72-74), 『역사 속』에서는 제10장 “장애인 예술가의 세계”에서 문인의 예로 들었고,<sup>3</sup> 『한국장애인사』에서는 제4부 “예술가 편”에서 다시 소개하면서,<sup>4</sup> 이에 덧붙여 “강취주는 또 남을 잘 가르쳐 그에게서 글을 배운 사람이 아주 많았다.”라고 하고 당대의 문인들을 거론하였다. 하지만 그가 속사(입주 가정교사)였으며 속사가 조선 시대에 어떤 대접을 받았는지,<sup>5</sup> 즉 그가 속사에 머물러 스승 대접을 받지 못했음을 서술하지 않았다. 『세상에』에서는 강취주의 발굴만으로도 의의가 있지만, 이후 책들은 다르다. 적어도 속사를 비롯한 설명이 첨가되어야 한다. 그래야 주제의 확대라 할 수 있다.

강취주만 그런 것이 아니고, 인물을 다룬 경우는 대개 그렇다. 일화의 인용이 길고 짧은 차이이다. 일화 중심이라 해도, 이런 서술방식을 이해하기 어렵다. 같은 인용문을 쓰는 것은 학계에서 종종 있는 일이니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세상에』와 같은 시대를 다룬 『역사 속』과 『한국장애인사』는 좀 심하다.

### 3. 장애인 범주의 문제점

저자처럼 장애인의 역사 또는 자료집을 염두에 둔다면, 장애인의 범주를 먼저 설정하지 않을 수 없다. 저자는 “우선 장애는 사회성을 가지고 있

3 정창권(2011), 『역사 속 장애인은 어떻게 살았을까』, 파주: 글항아리; 문학동네, pp. 448-449.

4 정창권 외(2014), 『한국장애인사』, 숲대, pp. 184-185.

5 강문중 외(2020), 『조선잡사』, 민음사, pp. 233-236.

다. 사회적 인식에 따라 장애나 아니냐가 결정된다.”(13)고 했다. 같은 장애라도 사회적 인식에 따라 장애인이 아닐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저자처럼 안경에 의지해 생활하는 근시인 사람은 전통사회에서는 시각장애인이지만, 안경이 보편화된 현대에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얼핏 들으면 맞는 말이고, 장애의 사회성을 중시하는 인식이 장애 연구에서 지금은 보편적이다. 그런데 그 ‘사회적 인식’에 대한 저자의 생각이 범박해 그 기준이 무엇인지 모호하다.

저자가 서문에서 밝혔듯이, “어느 누군들 한 가지씩 장애를 갖고 살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우리 모두는 신체적·정신적으로 한두 가지씩 장애를 안고 살고 있다.”(5) 현대에도 섭식장애, 공황장애 등 장애를 가진 사람은 많다. 하지만 이들을 모두 장애인이라 하지는 않는다. 즉 장애를 가진 사람을 모두 장애인으로 간주하지는 않는다. 그런데 세종이 장애인 5부작에서 시각장애인으로 간주되는 이유는 뭘까?

세종이 다방면의 책을 많이 읽어 눈이 나빴음은 널리 알려져 있다. 저자는 여기서 더 나아가 『역사 속』에서 이후 일관되게 세종이 후천적 시각장애인이었다고 주장한다. 많이 알려진 세종은 1420년(세종 2)에 집현전 중심으로 학문에 힘썼고, 박연을 중심으로 음악에 힘썼으며, 노비였던 장영실을 파격 기용하여 1434년(세종 16) 자격루를, 1441년(세종 23) 측우기를 만들었고, 1446년(세종 28) 훈민정음을 반포하였다. 그런데 저자는 세종이 1431년 35세 무렵 시각장애가 시작되었다고 보았다.<sup>6</sup> 1441년에 세자에게 섭정하게 하고, 세종 말년에 지팡이에 의지할 만큼 안질이 심했다고 한 것은 사실이다. 1431년 시각장애가 시작되었다는 것은 “내가 안질(眼疾)을 얻은 지 이제 10년이나 되었으므로, 마음을 편히 하여 조섭(調攝)하고자……비록 정사에 부지런하고자 한들 되겠는가.” 하는 『조선왕조실록』 세종 23~24년(1441~1442)의 기록에 따른 것이다.

6 정창권 외(2014), p. 18.

그러나 세종의 증세로 보이는 노안과 노년의 안질, 근시를 가진 사람들도 시각장애인으로 볼 수 있나 의문이다. 기록이 없는 말년 몇 해는 논평자도 모르겠다. 저자가 말하는 ‘사회적 인식’이 세종에게 시각장애가 있다고 여겼다면, 이규보를 비롯한 『한국문집총간』에 이름을 남기고 안질을 고백한 수많은 지식인들이<sup>7</sup> 거의 다 시각장애인이다. 이 안질 고백에는 다분히 수사적인 것도 있겠지만, 저자가 말한 ‘사회적 인식’이란 도대체 기준이 무엇인가 의문이다.

『지봉유설』에 나오는 양란 이후 급증했다는 ‘코 없이 사는 사람’<sup>8</sup>은 이른바 ‘언청이’도 안면장애로 분류하는 저자의 기준에서 보면 안면장애일 텐데, 왜 다루지 않는 것일까? 당대의 인식이 ‘언청이’는 장애인인데 ‘코 없이 사는 사람’은 장애인이 아니라면, 서문에서라도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언청이’에게는 당대에 편견이 있었고 ‘코 없이 사는 사람’에게는 편견이 없어서라면,<sup>9</sup> 즉 서문에서 말한 대로 ‘사회적 인식’이 문제라면, 세종처럼 노화로<sup>10</sup> 인한 안질도 시각장애인이라는 저자의 분류는 재고해야 한다. 더 나아가서 저자의 주장대로 전통시대에 장애인에 대한 편견이 없었다면, 전통시대의 장애인 문제 언급은 아예 의미가 없다.

저자가 말한 ‘사회적 인식’은 장애를 판별하는 데 물론 중요하다. 장애인 범주는 생물학적 ‘손상’이 기준이 다가 아니라 사회적 편견과 억압을 내포하는 의미에<sup>11</sup> 의해 성립한다. 장애학에서는 일반적으로 생물학적 손상에 주목한 ‘의료 모델’ 이후에 사회적 장애를 강조하는 ‘사회 모델’이 나왔다. 지금은 생물학적 손상과 사회적 환경을 다 봐야 한다는 ‘통합 모델’을

7 안질은 고전지식인에게 상병(常病)이었다고 한다[김승룡(2019), 「고전지식인의 眼疾과 그 의미에 대하여: 눈의 발견, 修養의 방식」, 『한국문학논총』 82, 한국문학회, p. 9.]

8 芝峯類說 卷三, 兵政部, “而是時我國之人。無鼻而得生者亦多矣。”

9 ‘코 없이 사는 사람’은 왜군의 횡포일 뿐이라 여겨 사회적 편견이 없었을 수 있다.

10 전통시대 노인의 기준이 현대보다 훨씬 빨랐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11 콜린 반스, 마이클 올리버, 렌 바턴 엮음(2017), 김도현 옮김, 『장애학의 오늘을 말한다: 차별에 맞서 장애 담론이 걸어온 길』, 그린비, pp. 72-73.



얘기하긴 하지만,<sup>12</sup> ‘사회 모델’이 강조하는 사회적 조건은 여전히 중시된다. 타이핑이 직업인 사람이 손가락을 하나 잃는 것과 기업의 대표가 손가락을 하나 잃는 것은 의미가 같을 수 없다. 손가락을 하나 잃었다는 의료적 사실은 같지만, 사회적 장애는 전자가 훨씬 크다. 한국에서는 장애학이 아직 낯설지만, ‘사회 모델’은 일일이 주를 달 수 없을 만큼 그 분야에서는 상식이 되었다. 그러나 장애 개념이 생긴 것은 200년도 안 되지만, 개념이 없었다고 생물학적 손상이나 사회적 편견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아무튼 저자가 말한 전통시대의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보충설명이 필요해 보인다.

#### 4. 기록 해석의 어려움

저자는 장애인의 역사 또는 자료집을 고려한다는 말을 종종 한다. 그러면서 ‘한국장애인사자료집’을 ‘한국여성사자료집’에 비견한다.<sup>13</sup> 즉 장애인과 여성이 과거에 같은 세상의 약자<sup>14</sup>였으니, 그들에 관한 자료를 모으는 일도 같다고 생각하는 듯하다. 다른 장애 연구자들처럼, 정창권 교수도 책 곳곳에서 과거 장애인과 여성의 처지가 같다는 말을 한다. 물론 장애인은 여성과 유사한 면이 있지만, 같지는 않다. 한 마디로 장애인사는 여성사와 다르다.

정창권 교수도 언급한, 이미 출간된 ‘한국여성사자료집’은 양반 남성의 글에 나타난 여성을 대상으로 한다. 양반의 절반은 여성이고, 그들에 관한 기록은 많이 남아 있다. 양반 남성이 자기 어머니, 아내, 딸, 혹은 지인의 부탁으로 쓴 다른 집안의 여성 관련 기록이 많이 전한다. 그래서 여성 관련

12 윤상용 외(2019), 『장애인복지론』, 2판(초판 2016), 신정, pp. 22-29.

13 정창권(2011), p. 8.

14 저자의 일관된 주장에 따르면, 조선 시대 장애인은 세상의 약자도 아니었다.

제문, 행장, 묘지명 등을 모아 ‘한국여성사자료집’ 시리즈를 낼 수 있었다. 하지만 그 기록의 한계를 ‘한국여성사자료집’에 관여한 논평자와 같은 연구자들이 누구보다 뚜렷하게 알고 있다. 기록된 여성은 양반이 절대적으로 많으며, 양반이 아닌 여성에 관한 기록은 극히 적고, 있다 해도 열(烈)처럼 양반 남성의 구미에 맞는 것뿐이다.

예컨대, 여성 노비에 관한 기록 부재의 심각성을 보자. 조선 중기까지 양반은 인구의 5%, 노비는 30% 내외로 알려져 있다. 그러면 한 양반이 거느린 노비는 얼마나 될까? 그 30%의 절반은 여성일 테지만, 그들에 대한 기록은 거의 없다. 이황을 예로 들면, 그가 그의 유일한 아들에게 물려준 노비가 약 300명 정도였다.<sup>15</sup> 이황이 아들에게 서찰을 써 보내 노비를 늘리는 방법을 가르쳤음은 알려진 사실이다. 노비를 이용한 재산 증식 방식이 당시로서는 특별한 것이 아니다. 노비는 조선시대에 매매와 증여가 가능한 재산일 뿐이었다. 노비 없이 조선은 돌아가지 않지만, 그만큼 수적으로도 적지 않지만, 노비에 관한 기록은 거의 없다. 여성 노비도 같다. 암수범죄처럼, 과거에 노비와 장애인은 기록도 잘 안 되는 사람들이란 것이 논평자의 생각이다.

그래서 더욱 문제 되는 것이 기록 해석의 어려움이다. 조선시대 상층 양반 남성이 여성에 관해 쓴 기록이 그렇듯이, 사회적 강자들의 표면적인 기록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노비 여성의 경우에도 미화되거나 주자학적 세계관에 맞는, 아주 특이한 경우는 기록될 수도 있겠다. 예컨대, 지체장애인 남편에게 살아서도 죽어서도 정절을 지킨 종인 여자의 이야기는<sup>16</sup> 장애인 가족의 헌신도 보여 주지만, 여성의 열(烈) 가치가 하층에까지 미친 조선 후기의 감성이 있어 기록될 수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과거에 노비와 여성과 장애인에 관한 기록은 쉽게 왜곡된다.

15 김건태(2011), 「이황의 가산경영과 치산이재(治産理財)」, 『퇴계학보』 130, 퇴계학연구원, p. 164.

16 정창권(2011), pp. 196-199.

또 홍대용의 『담헌서』〈임하경륜〉 한 구절을 보자.

“보지 못하는 사람은 짐치는 일을, 궁형宮刑을 당한 자는 문 지키는 일을 시키며, 심지어 말하지 못하는 사람, 듣지 못하는 사람, 두 다리가 불편한 사람까지 모두 일자리를 갖도록 해야 한다.”(22)

“면면에서 가르치는 데는 그중 뜻이 높고 재주가 많은 자는 위로 올려 조정에서 쓰도록 하고 자질이 둔하고 용렬한 자는 아래로 돌려 민간에서 쓰도록 하며, 그중 생각을 잘하고 숨씨가 재빠른 자는 공업工業으로 돌리고, 이익에 밝고 재물을 좋아하는 자는 상업商業으로 돌리며, 피를 좋아하고 용맹이 있는 자는 무반武班으로 돌리고, 소경은 짐치는 데로, 궁형당한 자는 문 지키는 데로 돌리며, 심지어 병어리와 귀머거리·얕은뱅이까지 모두 일자리를 갖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놀면서 입고 먹으며 일하지 않는 자는 나라에서 별주고 향당에서도 버려야 한다.(홍대용, 『濳軒書』 내집 4권, 보유補遺, 임하경륜林下經論)<sup>17</sup> (밑줄 친 곳은 상기 인용문과 같은 대목임.)

두 인용문은 해석에 있어서 오류가 있어 보인다. 첫 번째 인용은 『세상에』에서, 두 번째 인용은 『역사 속』에서 옮긴 것이다. 『역사 속』에는 해제가 달려 있다. “이것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려 자연스럽게 살아왔던 시대의 모습을 단적으로 보여준 것.”<sup>18</sup>이라고 했다. 과연 그런가? 일종의 확대 해석이 아닐까? 논평자에게 오히려 그렇지 못한 현실에 대한 비판으로

17 정창권(2011), pp. 108-109. 인용문의 원문은 이렇다. “(凡人品有高下。材有長短。因其高下而舍短而用長。則天下無全棄之才。)一 왜 이 대목을 빼 놓았는지 모르겠다. 一面中之教。其志高而才多者。升之於上而用於朝。其質鈍而庸鄙者。歸之於下而用於野。其巧思而敏手者。歸之於工。其通利而好貨者。歸之於賈。問其好謀而有勇者。歸之於武。瞽者以下。宮者以閹。以至於啗鬻跛躄。莫不各有所事。其遊衣遊食不事行業者。君長罰之。鄉黨棄之。”

18 정창권(2011), p. 109.

보인다. <임하경륜>은 홍대용의 경세제민에 대한 방안을 제시한 글이다. 현실이 그렇지 못하니 바꾸자는 일종의 제안이다. 요컨대 『세상에』와 『역사 속』에서 제시한 홍대용, 정약용, 최한기 등 조선 후기 지식인들의 기록은, 저자의 해석과 반대로, 오히려 장애인의 처우를 개선하라는 것으로 해석된다.

## 5. 전통시대에 대한 환상

저자는 ‘장애인 5부작’에서 줄곧, 전통시대에는 장애인이 지금보다 살기 힘들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편견이라는 관점을 유지하고 있다. “막상 장애인사를 연구하다 보니, 역사는 때로 후퇴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과거 장애인의 역사가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던 것과는 사뭇 달랐던 것이다. 조선시대만 해도 장애인에 대한 복지정책과 사회적 인식은 대단히 선진적이었다.”<sup>19</sup>고 했다. 그 예로 자주 드는 것이 명통시(明通寺)다. 그것이 세계 최초의 장애인 단체라고 저자는 대서특필한다.

‘寺’는 절을 뜻할 때는 ‘사’지만, 관청을 가리킬 때는 ‘시’로 읽는다. 당대인들이 ‘명통시’로 인식했는지, ‘명통사’로 인식했는지는 모른다. 아무튼 명통시의 시각장애인 후원은 조선 초기에 승려나 무녀를, 정확하게 말하면 기우체 같은 자연에 지내는 재를 경제적으로 지원한 것과 같은 맥락으로 보여, 확대 해석이 우려된다.

관련 자료는 『역사 속』에 가장 자세한데, 저자는 태종실록과 세종실록 등을 바탕으로 국가가 명통시를 시각장애인들의 공식적인 단체로 여겼다고 했지만,<sup>20</sup> 이는 조선 초기에 절을 지원한 것과 같은 맥락으로 보인다. 관

19 정창권(2019), 『근대 장애인사: 장애인 소외와 배제의 기원을 찾아서』, 사우, p. 6.

20 정창권(2011), p. 171.

런 자료가 많아 여기서 다 들 수는 없지만, 소경을 기우제 등에 필요한 무녀나 승려와 동급으로 보는 듯했다. 조선 초기는 주자학으로 완전히 바뀌기 전이니, 이 시기의 명통시에는 특별한 의미를 부여할 수도 있겠지만, 기우제를 지낸 무녀에게 쌀을 내렸다고, 조선이 무속을 지원했다고 말하지는 않듯이, 명통시를 국가가 지원하는 장애인 단체였다고(55) 말하는 것은 무리인 듯하다.

그리고 명통시에 관한 『용재총화』의 일화에 따르면, 당시 명통시에는 문을 지키는 자가 있어 아무나 출입할 수 없었다고 했는데, 그 일화는 길어 여기서 다 인용하지 못하지만, 간단히 말하면 명통시의 경계를 뚫고 들어가 시각장애인들을 괴롭힌 서생(書生)의 행동에 관한 것이다(52-54).<sup>21</sup> 경계를 뚫고 일부러 들어간 행동을 단순한 장난으로 돌릴 수 없다. 가해자 입장에서는 단순한 장난일지 몰라도, 피해자 입장에서는 공포심을 자극하는 폭력이다. 더구나 이튿날 그 서생이 변소에 숨어 있다가 갑자기 노끈으로 시각장애인의 음경을 잡아당긴 사건은 『역사 속』 저자의 해체처럼 ‘흥미로운’ 사건이 아니고 엄연한 물리적 폭력이다. 그런데도 저자는 “사람들은 간혹 그들의 신체에 대해 놀리거나 장난을 치기는 했지만, 그건 일시적인 순간일 뿐 일부러 소외시키거나 폭력을 행사하지는 않았다.”(181)고 했다. 그렇다면,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이른바 ‘일시적인’ 장난과, 소외나 폭력과 다름없는 회화화의 차이는 무엇인가?<sup>22</sup>

정창권 교수의 주장 역시 이 일화들의 관점에 그대로 기대고 있다. 『세상에』와 『역사 속』과 『한국장애인사』에 모두 나오는, 한쪽 눈의 여성 예술가 백옥(174-176)을 예로 들어 보자.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면 이렇다. 백옥은 애첩인데, 기녀들의 놀림을 받고, 백옥의 남자는 집에 돌아와 그녀를 위로한다는 내용이다. 여기서 논평자는 장애인에 대한 소외와 언어폭력을 보

21 일화의 전모를 보려면 『역사 속』을 볼 것.

22 장애인 신체의 대상화란 면에서, 명통시 일화를 실은 성현의 『용재총화』를 비롯해 서거정의 『태평한화골계전』, 유몽인의 『어우야담』 등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는데, 저자는 장난과 남자의 사랑을 본다. 그래서 한정되고 치우친 자료는 해석이 늘 어렵고 조심스럽다.

저자는 “장애인이란 하여 천시되지 않았고, 자신들의 특성에 맞는 직업이 주어졌으며, 또 양반층의 경우는 과거를 보아 관직에 오를 수도 있었다.”(184)는 취지의 말을 ‘장애인 5부작’에서 누누이 강조한다. 그런데 조선이 철저한 신분 사회였음을 저자는 종종 잊는 듯하다.<sup>23</sup> 장애인이 양반이라면, 장애인이란 이유로 그에게 함부로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미 권력을 쥐 관리라면 더욱 그럴 것이다. 예컨대, 16세기 목재 이문건의 아들 온이 이른바 정상적이지 않았음은 많이 알려져 있는데, 그에 대해 저자는 이렇게 말한다.

“중증 장애인일 경우에도 결혼하여 자식을 낳고 새로운 가정을 꾸밀 수 있었다. 이문건의 아들 온의 경우처럼 정신지체와 중풍, 정신분열증 등 복합적인 정신장애를 안고 있었어도, 어머니의 헌신적인 수발로 재혼까지 하여 1남 3녀의 자녀를 두었던 것이다.”(181)

이런 것이 양반 남성이 아닌데도 가능했을까? 또 다른 예를 들어, 숙종 때 문신 윤지완도 『세상에』와 『역사 속』과 『한국장애인사』에 모두 나오는데, 양반 출신이다. 저자는 이렇게 총평한다.

“윤지완은 조선 초기와 마찬가지로 조선 후기 사회가 장애인을 어떻게 대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 주는 인물이다. … 윤지완이 좋은 집안에서 태어나 높은 자리에 오른 지체장애인이었다는 사실은 그리 중요한 것이 아니다. … 또한 조선 후기는 초기와 마찬가지로 한 인물을 평가할 때 그 사람의

23 장애인 대우에도 조선 전·중기와 후기가 다르다는 것을 저자도 인식하고 있다[정창권 (2005), pp. 184-186].

겉모습과 장애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능력과 덕망을 중시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sup>24</sup>

하지만 그는 양반이었고, 병으로 한쪽 다리를 잃기 전에 이미 문과 급제까지 했으며 일본에 사신으로도 다녀왔다. 형 윤지선은 좌의정을 지냈다. 그런데도 윤지완이 정승이었으니, 조선은 장애인을 차별하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는가? 그가 좋은 집안의 양반 출신이란 사실이 정말 저자의 말처럼 그리 중요하지 않을까?

또 다른 예를 들면, 『역사 속』과 『한국장애인사』에서 심희수를 광해군 때의 지체장애인 정승으로 소개하고 있지만,<sup>25</sup> 그는 이미 선조 때부터 이른바 ‘잘 나가던’ 관리였다. 더구나 그가 앓은병이 된 것은 조선시대 같으면 한참 노령인 60세 이후다. 조선은 노인을 공경해야 한다고 가르치던 사회다. 그러니 왕이 명하여 그를 부축하게 한 것은 일견 당연하다. 이런 것이 조선시대가 장애인을 평등하게 대했다는 증거가 되는가?

또한 전통시대에는 경증의<sup>26</sup> 장애인도 직업이 다 있었다고 했다. 전통 사회를 다루는 『세상에』, 『역사 속』, 『한국장애인사』에는 시각장애인이 다수다. 『역사 속』 제5장에서 “장애인 직업사”를 길게 다루었는데, 그중 점복가, 독경사, 악공 등 시각장애인의 직업이 절대 다수다. 그만큼 상대적으로 시각장애인의 기록이 많다는 뜻이다. 끝에 든 안경장과와 대장장은 시각장애인이 아니지만, 모두 18~19세기 사람으로 한 사람씩만 들었다. 『한국장애인사』에 따르면, 왕족과 관료, 학자와 예술가 등 장애인의 직업에 제한이 없었다. 그러나 정말 그런지는 하나하나 따져봐야 한다.

24 정창권 외(2014), pp. 78-81.

25 정창권(2011), p. 324.

26 경증과 중증의 기준도 애매하다. 직업이 없으면 중증인가? 예컨대, 저자는 한 일화에서 이른바 ‘앓은뱅이’ 남편을 중증 지체장애인으로 보았는데, 그 근거가 무엇인지 모르겠다 [정창권(2011), p. 199].

관점의 문제는 저자의 말처럼 자료의 양을 늘리고 추가한다고<sup>27</sup> 해결되진 않는다. 저자의 일관된 주장은 전통시대 장애인 현실에 대한 또 다른 편견의 생산이 아닐까 우려된다. 대중적 영향력의 예는 이 글 첫머리에서 보였고, 『근대 장애인사』의 서평을 쓴 안교성 장로회신학대학교 교수도 “조선시대만 하더라도 장애인은 상대적으로 큰 문제 없이 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었”다는 저자의 말을 그대로 믿고 있다.<sup>28</sup> 비전공자는 전공자의 말을 쉽게 믿기 마련이다.

## 6. 문화 연구로서의 장애사

정창권 교수의 『세상에』를 비롯한 ‘장애인 5부작’의 의도는 분명 좋았다. 장애 문제가 나와 상관없다 여기는 많은 사람들에 비하면, ‘장애인 5부작’의 시도는 인문학적 관심 면에서도, 문화 연구로서의 장애사 면에서도 분명 의의가 있다. 논평자도 ‘장애인 5부작’에서 새로 알게 된 정보가 적지 않다. 장애인으로서, 학자로서, 명통시의 존재도 몰랐고, 강취주도, 훈맹정음도<sup>29</sup> 몰랐다. 이에 대해서는 부끄럽고 감사하다.

한국고전여성문학‘사’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사족을 한 마디 붙이자면, 너무 혼자 애쓰지 말라는 것이다. 저자는 『한국장애인사』와 『근대 장애인사』를 이미 썼다. 그러나 기왕에 ‘사(史)’를 쓰려면 단순한 자료집만으로는 안 된다. 자료집이라도 인용과 해제에 신경을 많이 써야 한다. 명통시 기사를 모아놓은 『오주연문장전산고』를 길게 인용한다고, 소재목처럼 “한국 시각장애인 소사”가 되지는 않는다.<sup>30</sup> 관련 연구가 많아져야 진짜 장애인사를

27 정창권(2011), p. 20.

28 안교성(2020), 「근대 한국 장애인의 삶」, 『기독교 사상』 733, 대한기독교서회, p. 188.

29 훈맹정음에 관해서는 정창권(2019)에 자세하다.

30 정창권(2011), pp. 183-190.



쓸 수 있다. ‘사’는 혼자 감당할 일은 아니다. 문학을 비롯한 여러 분야에서 장애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니, 좀 더 기다릴 필요가 있다. 진정한 ‘사’는 1차 자료만이 아닌 논저가 쌓여야 가능하다.

장애인 5부작의 많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세상에』는 한국고전문학계에서 그 물꼬를 튼 책이니 칭찬받아 마땅하다. 『세상에』가 신간도 아닌데 서평이 필요한 이유가 이것이다. 저자의 말을 빌어 글을 마무리하자.

“최근 서구의 장애 연구는 의료나 사회복지학의 관심을 넘어 중요한 문화 연구의 한 영역이 되고 있다.……이젠 장애 문제가 엄연한 인문학적 관심의 대상으로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5)

## 참고문헌

- 강문종·김동건·장유승·홍현성(2020), 『조선잡사: '사농' 말고 '공상'으로 보는 조선 시대 직업의 모든 것』, 민음사.
- 김건태(2011), 「이황의 가산경영과 치산이재(治産理財)」, 『퇴계학보』 130, 퇴계학연구원.
- 안교성(2020), 「근대 한국 장애인의 삶: 고단하게 만든 사회, 강인하게 일어난 개인: 정창권의 『근대 장애인사: 장애인 소외와 배제의 기원을 찾아서』」, 『기독교 사상』 733, 대한기독교서회.
- 윤상용·이승기·서동명·염태산(2019), 『장애인복지론』, 신정.
- 정창권(2005), 『세상에 버릴 사람은 아무도 없다: 역사 속 장애인 이야기』, 파주: 문학동네.
- 정창권(2011), 『역사 속 장애인은 어떻게 살았을까: 사료와 함께 읽는 장애인사』, 파주: 글항아리.
- 정창권·윤종선·방귀희·김언지(2014), 『한국장애인사: 역사 속의 장애 인물』, 숲대.
- 정창권·윤종선·노혜진·박현정·윤태근·허지이(2018), 『소설로 장애 읽기: 근대 장애인의 문학적 초상』(2019 2쇄), 지성인.
- 정창권(2019), 『근대 장애인사: 장애인 소외와 배제의 기원을 찾아서』, 사우.
- Barnes, Colin, Michael Oliver, and Len Barton (eds.)(2017), 김도현 옮김, 『장애학의 오늘을 말한다: 차별에 맞서 장애 담론이 걸어온 길』, 그린비.

